

묵암(默巖) 김동필(金東弼)의 삶과 시세계

권 진 호*

- I. 머리말
- II. 묵암의 삶과 학문경향
 - 1. 가계 및 처사적 삶
 - 2. 학문경향
- III. 묵암의 시세계
 - 1. 사물을 통한 삶의 방향 투영
 - 2. 한적한 전원생활의 흥취
 - 3. 내면의 자기수양
- IV.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묵암(默巖) 김동필(金東弼, 1736~1807)의 삶과 시세계를 조명하였다. 그는 평생 향촌에 은거하여 처사형(處士型) 학자의 삶을 살다간 인물이다. 그가 추진해 온 사업은 한마디로 한 가문의 가통(家統)을 세우는 일과 향촌사회의 민풍(民風)을 순화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그의 학문은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내면의 심성수양과 실천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 같은 학문경향은 내적으로는 서계(西溪) 김담수(金聃壽, 1535~1603)와 월담(月潭) 김정룡(金廷龍, 1561~1619)의 가학(家學)의 전통과 외적으로는 남명(南冥) 조식(曹植, 1501~1572)과 한강(寒岡) 정

*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 jhkwon@koreastudy.or.kr

구(鄭述, 1543~1620)의 학문관점을 이어받아 자기 나름의 학문세계를 추구해 나갔다.

그 결과 360여수에 달하는 그의 시문학도 철학적 함의를 담고 있는 철리시(哲理詩) 계통의 한시는 거의 없고, 향촌에서 느끼는 일상의 체험을 담담한 필치로 표백하였다. 그래서 자신의 현재적 심정과 처지를 주변의 자연물에 투영시켜 형상화하였고, 한적한 전원생활의 흥취를 진솔하게 그려내었으며, 끊임없는 성찰의 삶을 시적으로 담아내었다.

요컨대, 그가 행한 일련의 사업은 가문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문의 결속과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지역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자로서의 소임과 책무가 무엇인가를 일깨워준다. 한마디로 그는 처사형 학자의 전형적인 삶을 살다간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 주제어

김동필(金東弼), 처사형(處士型), 가통(家統), 심성수양(心性修養), 민풍(民風), 학문관점(學問觀點), 철리시(哲理詩), 형상화(形象化), 가문사적(家門史的), 지역사회적(地域社會的)

I. 머리말

상주에 터전을 잡은 서계(西溪) 김담수(金聃壽, 1535~1603)의 후손들은 과거로 발신하여 벼슬길에 나가기도 하지만 대체로 향촌에 은거하여 처사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 대표적 인물이 묵암(默巖) 김동필(金東弼, 1736~1807)이다.

그가 평생 추진해 온 것은 위선(爲先)사업과 향풍진작이다. 그가 행한 일련의 사업은 가문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 집안의 가풍(家風)과 가격(家格)을 진작시켜 가문의 결속과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지역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자로서의 소임과 책무가 무엇인가를 일깨워준다. 한마디로 그는 처사형 학자의 전형적인 삶을 살다간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묵암 김동필은 18세기 전형적인 처사형 학자로서 지역사와 가문사적인 측면에서 나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선행연구는 2016년도에 『묵암문집』 번역을 간행하면서 쓴 해제 1편¹⁾이 있을 뿐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참조하여 묵암 김동필이 남긴 시문학을 조명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시문학의 배경이 되는 그의 처사적 삶과 학문경향을 알아본 뒤, 시문학을 몇 개의 주제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한 지역에 수백 년간 동성부락을 형성해 온 가문의 가학전승과 가풍적 특색을 조명하는 것은 이 지역의 다른 성씨집단이 추구한 가학적 특색의 동질성과 변별성을 확인하는 작업일 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상주지역의 학문적 특색을 밝히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런 연구가 축적된다면 같은 시대 중앙 학단과 지역 학문간의 상호 비교연구가 가능하게 되며, 결국

1) 정우락, 「묵암문집」해제, 『묵암문집』(1,2), 한국국학진흥원, 2016. 해제에서는 서지사항과 간행경위, 저자의 가계와 생애, 강안학의 실용주의 전통 계승, 『묵암집』의 구성과 내용, 맺음말 등의 순서로 내용을 개괄하였다. 『묵암집』의 대체적인 내용과 특징적인 국면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지역학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하리라 생각한다.

II. 묵암의 삶과 학문경향

1. 가계 및 처사적 삶

김동필(金東弼, 1736~1807)은 초명은 동익(東翼), 자는 공보(公輔), 호는 묵암(默巖), 본관은 의성이다. 그는 1736년(영조 12) 10월 19일 눌리(訥里)의 옛집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김학빈(金學彬)이고 어머니는 영산 김씨(永山金氏) 김태기(金泰紀)의 딸이자 참봉 김세익(金世翼)의 손녀이며, 생부는 성균 생원 김도빈(金道彬)이고 생모는 야성 송씨(冶城宋氏) 송정기(宋鼎基)의 딸이자 야계(御溪) 송희규(宋希奎)의 7대 손녀이다.²⁾

신라 경순왕의 넷째 아들인 김석(金錫)을 비조(鼻祖)로 하는 의성 김씨는 고려 때 김용비(金龍庇)가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태자첨사(太子詹事)로서 백성에게 공덕이 있어 진민사(鎭民祠)에 봉향되었고, 조선에 이르러 김용초(金用超)는 태조를 보좌하여 원종공신에 녹훈되고 충청도 병마도절제사를 지냈으며, 호는 내성재(內省齋)이고, 시호는 문절(文節)이다.

5세를 지나 사우당(四友堂) 김관석(金關石, 1505~1542)은 효행으로 제릉 참봉에 제수되고, 성주 덕천서원(德泉書院)에 봉향되었다. 이분이 비로소 성주의 윤동(倫洞)에 살게 되었다. 김관석이 네 아들을 두었는데, 그중에 셋째 아들 서계(西溪) 김담수(金聃壽, 1535~1603)는 사마시에 합격하여 유일(遺

2) 金東弼, 『默巖文集』 권7, 「默巖公遺事」. “考諱學彬, 妣永山金氏參奉世翼孫泰紀女, 生考諱道彬成均生員, 妣治爐宋氏御溪七代孫鼎基女.” 이후 그의 ‘가계 및 처사적 삶’에 대해서는 「默巖公遺事」(권7, 不肖孫 遠根), 「默巖公行狀」(권7, 族後孫 秉武), 「默巖金公墓碣銘」(권7, 柳尋春)과 「世系賦」(권3) 등을 참조하여 구성하였으며, 일일이 각주를 달지 않았다. 그리고 번역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간행한 『영남선현문집국역총서(20·21)』 『묵암문집(1·2)』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둔다.

逸)로 선공감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남명 조식(1501~1572)과 덕계(德溪) 오건(吳健, 1521~1574)의 문하에서 학문을 강론하고 도를 닦았으며, 벼슬에 나아가기를 즐겨하지 않고 동강 김우옹(1540~1603)과 한강 정구(1543~1620)와 도의를 강마하였다. 선조 임금께서 황계처사(黃溪處士)라는 호를 내렸고, 성주의 청천서원(淸川書院)과 상주의 낙암서원(洛巖書院)에 봉향되었다.³⁾ 그런데 성주에 살던 의성 김씨가 상주에 터를 잡고 살게 된 것은 바로 김담수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정유재란 때 안동으로 피란했는데 그곳에서 어머니 상을 당하게 된다. 이때 고향 성주로 가지 못하고 상주 중동 낙동강가에 임시로 장례를 치르게 된다. 이를 계기로 이후 김담수의 후손들은 상주 중동의 죽암에 세거하게 된다.

김담수는 네 아들을 두었는데 그 첫째가 월담(月潭) 김정룡(金廷龍, 1561~1619)이다. 그는 한강 정구의 문인으로, 문과에 급제한 후 여러 군읍의 수령을 지냈으며, 특히 임진왜란 때 예안 현감으로 군량 운송의 책임을 맡아 그 일을 매끄럽게 잘 처리하였다. 당시 명나라 장수가 나라를 위한 그의 충성을 칭송하였고, 선조께서 특별히 글을 하사하여 장려하였다. 상주의 낙암서원에 배향되었다.⁴⁾ 6대손 묵암(默巖) 김동필(金東弼, 1736~1807)은 그의 「가장(家狀)」에서

“병신년(1596) 9월에 예안 현감에 특별히 제수되고, 겸하여 군량을 옮기는 임무를 맡았다. 이때는 왜구가 가득한 지 5년이나 되었는데 영남이 더욱 심하였다. 부군은 이때 막 대종(大塚)을 앓고 있었지만 병을 무릅쓰고 임무에 매진하여 눈비가 내려도 아랑곳 하지 않고 수륙(水陸)으로 운반하여 군대에 양식을 대는 것이 끊어지지 않았다. 선조께서 가상히 여겨 모두 세 번 유시(諭示)

3) 김동필, 『묵암문집』 권7, 「默巖公行狀」. “有四子, 第三者諱聘壽, 中司馬, 以遺逸除繕工監參奉. 師事曹南冥吳德溪, 先生講學修道, 不樂仕進, 與兩岡, 講磨道義. 宣廟賜號黃溪處士, 享淸川書院洛巖書院.”

4) 김동필, 위의 책, 같은 곳. “有四子, 第一子諱廷龍. 文科郡守行吏曹正郎, 歷典郡邑, 號月潭. 壬辰亂時, 知禮安郡, 承運糧之責, 善富其任. 其時天將, 稱其爲國誠忠, 宣廟特賜黃柑獎之. 師事鄭寒岡先生, 配享洛巖書院.”

를 내려서 칭찬하고 장려하여 특별히 황감(黃柑) 한 그릇을 내려 그 수고에 보답하였다.”⁵⁾

라고 하여, 자신의 몸이 불편한데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나라를 위해 군량을 옮기는 임무를 수행한 사실을 특기하였다.

김정룡은 네 아들을 두었는데 그 첫째가 김이원(金以元)으로 진사이고, 김이원이 김연(金堧)을 두니 유일로 조지서 별제에 천거되었다. 이분이 김동필에게 고조부가 된다. 증조부는 김익남(金益南)이고 조부는 김익남의 세 아들 중에 셋째인 김시성(金始成)이며 부친은 김학빈(金學彬, 1716~1756)이다.

이렇듯 김동필의 선대는 월담 김정룡처럼 간혹 벼슬길에 나아가 나라를 위해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기도 하지만 주로 초야에 은거하여 심성수양과 학문을 추구하는 처사적 삶을 살아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김담수는 남명 조식과 덕계 오건의 문인이고 김담수의 아들 월담 김정룡은 한강 정구의 문인인데서 알 수 있듯이, 김동필의 선대는 조식과 정구의 학문을 계승하고 있음도 파악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처사적 삶의 태도와 학문관점은 김동필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목암 김동필은 어려서부터 재기(才氣)가 남다르고 자품이 뛰어났으며 기상이 의젓하였다. 그는 6세에 생부(金道彬)의 상을 당한 이후, 8살에 생부의 막내아우이자 나중에 양부가 되는 김학빈에게 수업을 받기 시작한다. 11세에 『논어』와 『맹자』 공부를 하면서 “경서는 성현이 남기신 글로서 『통감』이나 『사략』과 달라 잠심한 뒤에야 읽는 바가 있다.”고 하였다.⁶⁾ 그래서 마음을 붙여 온 힘을 집중하여 깊이 연구하였다. 어쩌다 문장의 뜻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공부를 많이 한 자에게 나아가 질문을 하거나 동학들과 정밀한 뜻을 강론하였다. 이로부터 학업이 진보하고 학문이 더욱 밝아졌다.⁷⁾

5) 金廷龍, 『月潭先生逸稿』 권3, 「家狀」. “丙申九月, 特除禮安縣監, 兼付以運糧之任. 時則島夷衝斥五載, 而嶺下尤有甚焉. 府君方患大瘡, 昇疾驅馳, 不憚雨雪, 水陸運輸, 餉軍不絕. 宣廟嘉之, 凡三諭而褒獎之, 特賜黃柑一器而酬其勩.”

6) 김동필, 『목암문집』 권7, 「默巖公遺事」. “十一歲, 入論孟, 以爲經書聖賢遺傳, 異於通史, 潛心而後有得.”

그러나 집안의 우환이 계속 일어난다. 13세에 생모 야성 송씨가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게 되고, 21세(1756)에 계부(季父) 김학빈 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자, 중부(仲父) 김덕빈(金德彬)의 명으로 계부의 집안으로 양자를 가게 된다.

이후 김동필에게 주어진 소명은 쇠락한 가업을 일으키는 일이었다. 그는 평소 과거에 뜻이 없었지만 집안과 아버이를 위해 애써 시험에 응시하였다. 그러나 여러 차례 합격하지 못하였다. 김동필은

“선비의 공부는 오직 나의 본성을 찾는 방법에 있고, 급제에 대해서는 굳이 논할 것이 못된다.”⁸⁾

라고 하면서, 끝내 개의치 않았다.

쇠락한 가업을 일으키기 위해 택한 과거시험도 뜻대로 되지 않자, 그가 향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학문을 통한 심성수양과 후학교육⁹⁾, 그리고 위선(爲先)사업에 치중하는 것이었다. 위선 사업의 첫 번째로 선조들의 문집간행을 들 수 있다.

김동필은 집안 문중에서 큰 어른인 서계 김담수의 문집간행을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먼저 흩어져 있는 김담수의 유고를 정리하고, 당시 영남의 대학자인 대산 이상정(1711~1781)을 찾아가 뵙고 「서문」과 「행장」을 받아 왔다. 그리고 정와(靜窩) 조석철(趙錫喆, 1724~1799), 화암(華巖) 이사정(李師靖, 1724~1789) 등과 함께 초고를 교정하고 간행하여 세상에 전하였다.¹⁰⁾ 그는 그때의 감회를 다음과 같은 시로 나타내었다.

7) 김동필, 위의 책, 같은 곳. “或有文義未解處，則必就博聞者質焉，又與學徒講論精義。自是之後，業益進而學益明。”

8) 김동필, 위의 책 권7, 「默巖公行狀」. “嘗曰：‘儒者工夫，惟在求我之方，未必其得捷爲可論者也.’”

9) 학문을 통한 심성수양과 후학교육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10) 김동필, 『묵암문집』 권7, 「默巖公行狀」. “歲庚子，齋奉西溪先生遺稿，進拜大山李先生，受弁首之文及記德之狀。因與靜窩趙公錫喆華巖李公師靖，校正本草，以附剗刪，行於世。”

선조가 남기신 빛이 이날에 새로워지니	先祖幽光此日新
여러 어른 모시고 참된 토론을 하네	奉邀僉丈討論眞
남기신 글 고증하니 참으로 감회가 많은데	遺篇證考誠多感
봄비가 사람을 붙잡아 주니 신이 계신 듯하네	春雨留人若有神 ¹¹⁾

48세(1783) 무렵에 이사정을 모시고 선조 김담수의 문집을 편집하면서 벽찬 감회를 드러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선조의 문집이 간행되던 날 그 기쁨을 두 수의 시로 나타내었는데, 첫째 시에서는 그의 삶이 온통 ‘아버이 생각과 나라 걱정[事親憂國]’뿐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지적하였고¹²⁾, 두 번째 시에서는

숨겨졌던 광휘 드러나니 하늘이 시켰는가	光發幽潛天或使
책이 인쇄되니 선비들 앞다투어 흠모하네	編登剞劂士爭欽
문장과 덕의가 책 속에 함께 길이 남으니	文章德義書同壽
우러러 사모하는 마음 더욱 더해지리라	瞻慕羹牆自倍今 ¹³⁾

라고 하여, 문집이 간행됨으로써 선조의 문장과 덕의가 길이 후세에 전해질 것임을 확신하였다.

또한 김동필은 월담 김정룡의 문집 간행을 위해 먼저 「가장(家狀)」을 지어 그의 삶과 생각을 정리한 뒤, 그것을 기초로 입재(立齋) 정종로(鄭宗魯, 1738~1816)에게 나아가 김정룡의 「행장」을 부탁하고, 시축과 부록 등의 글을 베껴 한 권으로 만들고 책 끝에 발문을 붙였다.¹⁴⁾ 이 같은 문집 간행은 선조의 문장과 덕업이 후대에 전해지지 못할까 하는 심정의 발로였다. 아울러 김동필은 이 두 선조들의 문집 간행 뿐만 아니라 사림들의 공론으로 낙

11) 김동필, 위의 책 권1, 「癸卯三月奉邀李丈師靖 編次先集 吟新字」 참조.

12) 김동필, 위의 책 권1, 「先集初巡印役時 述感懷 求和於座上」. “百載儀音卷裏尋, 思親憂國一團心. 傳家古韻巖簞老, 講道眞源洛水深.”

13) 김동필, 위의 책 권1, 「先集初巡印役時 述感懷 求和於座上」 참조.

14) 김동필, 위의 책 권4, 「書月潭先祖遺稿篇末」 참조.

암서원을 건립하여 3부자를 모심으로써 한 가문의 가격(家格)과 가풍(家風)을 확립해갈 뿐만 아니라 향촌사회에서 문중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다.¹⁵⁾

또한 그는 서계 김담수의 묘소에 석물이 없어 후손들이 묘소를 찾지 못할까 염려하여 석물을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¹⁶⁾ 그는 29세(1764) 때 중형인 김동엽(金東曄, 1731~1779)과 상의하여 월담 김정룡의 둘째 아들 김이형(金以亨)의 위답(位畝)과 37세(1772)에 고조부인 김연(金堧, 1608~?)의 위답을 마련하였고,¹⁷⁾ 「중계안(宗契案)」을 만들어 조상의 은덕에 보답하고 친족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노력을 기울였다.¹⁸⁾ 나아가 「세계부(世系賦)」를 지어 김용초---김담수-김정룡-김정건-김이원으로 내려오는 의성 김씨 죽암 문중의 가문의식을 강하게 드러내었다.¹⁹⁾ 이는 가문의 결속과 집안의 전통을 계승하자는 김동필의 고심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김동필은 선부형(先父兄)들에 대한 추모사업 뿐만 아니라 향촌사회에서 학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도 하였다. 예전에 상주지역에 죽동향약(竹洞鄉約)이 전해왔는데, 불행하게 화마(火魔)로 옛 문서들이 불타버렸고, 근래

15) 1796년에 서계 김담수와 그의 아들 월담 김정룡과 국원(菊園) 김정건(金廷堅, 1576~1645) 등 3부자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낙암서원을 건립하였다. 김동필은 입재 정종로에게 「낙암사상량문(洛巖祠上樑文)」과 강재(剛齋) 이승연(李承延, 1720~1806)에게 「낙암사봉안문(洛巖祠奉安文)」을 부탁하는 등 서원건립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일을 하였다.

16) 김동필, 『묵암문집』 권4, 「勝洞山記」 참조. 이 글에서는 서계 김담수의 묘소에 석물을 갖추게 된 경위를 기록해 놓았다.

17) 김동필, 위의 책 권4, 「書先代位田契案末」. “粵在甲申, 稟及仲兄, 貸出宗家錢五緡, 積歲拮据, 還本於宗, 因辦置進士先祖位畝三十餘斗落, 且於壬辰之春, 謀與仲氏槩諸侄輩, 各出略干財, 擔當保長, 亦辦置別提先祖位畝.[지난 갑신년(1764)에 중형(김동엽)에게 말하여 종가의 돈 5꾸러미를 빌려내어 여러 해 애써 굴러 본전을 종가에 돌려주고 이것으로 진사 선조(進士先祖, 김정룡의 둘째 아들 金以亨)의 위답(位畝) 30여 마지기를 마련하여 두었고, 또 임진년(1772) 봄에 중형 및 조카들과 피하여 각각 약간의 재물을 내어 장리(長利)를 놓아 불려서 또 별제 선조(別提先祖, 김정룡의 손자이며 김이원(金以元)의 아들인 김연(金堧)의 위답을 마련하여 두었다.]”

18) 김동필, 위의 책 권4, 「書宗契案冊末」 참조.

19) 김동필, 위의 책 권3, 「世系賦」 참조.

몇 년 사이에 거듭된 흉년으로 비축해둔 곡식도 끊어지고 그에 따른 토지도 남의 손에 넘어가 버렸다. 그는 49세(1784) 때 5년간 이 일을 맡아 노력해왔고, 10년 뒤에 옛날 향약의 모습으로 그 규약을 회복하였다.²⁰⁾ 그러나 지금에 와서 예전의 규약대로 시행하지는 못하겠지만 규약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마음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랐다.

“무릇 이 규약에 참여한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이 선을 행한 뒤에 남에게 선을 요구하고, 자신의 허물을 꾸짖은 뒤에 남의 허물을 깨우쳐야 한다. 그렇지 않고 ‘아무개는 권할 만하고 아무개는 꾸짖을 만하다’고 한다면 진심으로 복종할 자가 드물 것이니, 이른바 규약 속의 조목들이 비록 빈 말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한들 되겠는가? 더구나 이 규약은 위아래가 함께 맺은 계이니, 단지 범범하게 관혼상제에 서로 도와주는 의리로만 여긴다면 평소 권면하고 바로잡아주는 원래의 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니, 더군다나 위사람이 행해야 아랫사람이 본받는 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²¹⁾

향약은 기본적으로 사족층이 향촌사회를 공동체적으로 결속시킴으로써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어찌 보면 사족층의 기층민에 대한 향촌 지배질서를 확립하는 통제수단이 되어, 기층민의 일방적인 헌신만을 강요하는 측면도 있었다. 김동필은 변화된 시대에 맞게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시행되는 이 죽동향약만큼은 일방적으로 기층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사족층인 위사람들이 몸소 앞장서서 실천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위사람이 행해야 아랫사람이 본받는 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향촌사회의 미풍양속을 계도할 책임이 있는 유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 김동필, 위의 책 권4, 「書竹洞鄉約冊末」 참조.

21) 김동필, 위의 책 권4, 「書竹洞鄉約冊末」. “凡我同約之人, 必須責己之善然後, 可勸人善, 責己之過然後, 可警人過. 而不然而曰: ‘某人可勸, 某人可警.’ 則鮮有能誠服者, 而所謂約中凡條, 雖欲不歸於空言得乎? 況是約也, 便作上下之同稷, 但泛看死喪顧助之義, 元不識平常勸規之方, 尤不可不思, 所以上行下效之道也.”

요컨대, 김동필은 평생토록 향촌에 은거하며 처사적 삶을 살아갔다. 한때 집안을 위해 과거공부를 하기도 했지만 출사할 수 없는 현실에서 그가 택한 길은 집안 선조들에 대한 현창사업과 지역사회에 향풍진작이었다. 이를테면 선조의 문집간행과 서원건립, 묘소와 재사를 수호하기 위한 제전(祭田)의 마련은 물론, 향약을 시행하여 향촌의 민풍을 순화시켰다. 김동필이 행한 일련의 사업은 가문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 집안의 가풍(家風)과 가격(家格)을 진작시켜 가문의 결속과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지역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자로서의 소임과 책무가 무엇인가를 일깨워주었다. 한마디로 그는 처사형 학자의 전형적인 삶을 살다간 인물이라고 할 것이다.

2. 학문경향

목암 김동필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면이 있었다. 여덟 살에 계부 김덕빈에게 「소학」을 배웠으며, 11세에 『논어』와 『맹자』 등 경서에 잠심하여 조금도 게을리한 적이 없었다. 이때 그는 밤낮으로 공부하여 “마음에 얻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기록하여 두었고, 더러 문장의 뜻이 이해되지 않는 곳이 있으면 반드시 따로 적어서 널리 듣는 사람에게 나아가 질문을 하였으며, 언제나 동학들과 강론하고 토론하였다.”²²⁾ 10세 전후의 이같은 학문자세는 주위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하였고 학업은 더욱 진취되어 갔다.

21세에 양자를 간 이후, 집안의 형편을 고려하여 과거시험에 응시하기도 하지만, 그가 궁극에 택한 길은 출사보다는 학자적 삶이었다. 학문을 통한 심성수양과 그것의 현실에서의 실천이었다.

그의 일상상은 자신의 마음가짐을 다잡는 수양적 삶의 모습이었다. 날마다 고요한 방에 있으면서 백규시(白圭詩)의 “흰 옥의 티는 오히려 갈아 없앨 수 있지만 말의 실수는 어찌할 수가 없다.”와 『논어』의 “몸소 스스로 두텁게 하

22) 김동필, 위의 책 권7, 「목암공행장」. “有得於心則必筭記, 有或文義未解處, 則必摘錄, 就其博聞者質之, 又每與同學講論討義.”

고 남에게 요구하기를 가볍게 하면 원망을 멀리하게 된다.”는 장을 암송하는 것을 몸가짐의 부신(符信)으로 삼았다.²³⁾ 나아가 자신뿐만 아니라 “문인이나 학자를 만날 때마다 반드시 『대학』의 ‘정심(正心)·성의(誠意)’와 『맹자』의 ‘알인욕(遏人欲)·존천리(存天理)’와 『논어』의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자기의 무능함을 걱정해야 한다.’와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는 장을 논하면서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반복하여 깨우쳐 주었다.²⁴⁾ 그러나 그의 수양론의 핵심은 「일난(一難)」·「삼외(三畏)」·「오계(五戒)」·「칠괴(七愧)」·「구회(九悔)」 같은 작품에 잘 드러나 있다.

그렇다면 「일난」은 무엇인가? 욕심을 억제하기가[制欲] 가장 어렵다는 것이며,²⁵⁾ 「삼외」는 천명(天命)과 본성을 해치는 것[滅性]과 사람의 말[人言]이 두렵다는 것이며,²⁶⁾ 「오계」는 여색[色]과 술[酒]과 자신의 허물[吾過]과 자신의 악함[己惡], 그리고 재물을 탐내는 것[得]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⁷⁾ 그리고 「칠괴」는 일곱 가지 부끄러움을 말하는데, 마음이 수양되지 않음이 부끄럽고, 입을 삼가지 않음이 부끄러우며, 성인의 가르침을 어긴 것이 부끄럽고, 남이 보지 않는 방에서 스스로 반성해보아 부끄럽고, 아버이 봉양에 정성이 부족하니 불효가 부끄럽고, 나라 경영에 재능이 없으니 불충이 부끄러우며, 늙어서 알려짐이 없으니 남자 됨이 부끄럽다는 말이다.²⁸⁾ 마지막

23) 김동필, 위의 책, 같은 곳. “日處靜室, 誦‘白圭之玷, 尚可磨也, 斯言之玷, 不可爲也.’及『論語』‘躬自厚而薄責於人則遠怨’之章, 以爲持身之符.”

24) 김동필, 위의 책, 같은 곳. “每遇文人學者, 必以言論『大學』‘正心誠意,’『孟子』‘遏欲存理,’『論語』‘不患人之不已知, 患其不能.’又‘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之章, 反覆開諭, 惇惇切切.”

25) 김동필, 위의 책 권4, 「一難」. “何事不難? 制欲最難.”

26) 김동필, 위의 책 권4, 「三畏」. “赫然在上, 天命是畏, 觸感神悸, 滅性可畏, 世道險穢, 人言亦畏.”

27) 김동필, 위의 책 권4, 「五戒」. “若斧伐根, 色可戒也, 如藥投毒, 酒可戒也, 見人之過, 吾過可戒, 聞人之惡, 己惡可戒, 老而氣衰, 得亦可戒.”

28) 김동필, 위의 책 권4, 「七愧」. “操舍無常, 心不養愧, 言動無定, 口不愼愧, 聖經在亅, 違厥訓愧, 屋漏在彼, 內自省愧, 誠淺終養, 不孝爲愧, 材蔑經國, 不忠爲愧, 老而無聞, 爲男子愧.”

으로 「구회」는 아홉 가지 뉘우침을 말하는데, 젊어서 부지런히 배우지 않아 늙어서 뉘우치고, 의리에 무지하니 궁구하지 않아 뉘우치고, 조금씩 화를 내어 일을 망친 뒤에 뉘우치고, 함부로 시비를 말하다가 낭패를 당하여 뉘우치고, 벼를 가려 사귀지 않아 지혜가 밝지 못함을 뉘우치고, 집안이 화순하지 못하니 몸을 닦지 못함을 뉘우치고, 세금 독촉하는 근심이 있으니 즉시 준비하지 못해 뉘우치고, 초가에 비가 새니 진작 이지 못한 것을 뉘우치고, 병이 고칠이 되니 통달하지 못해 뉘우친다는 것이다.²⁹⁾

위의 작품은 김동필이 육십 가까운 나이에 자신을 되돌아본 결과, 어려움[難], 두려움[畏], 경계함[戒], 부끄러움[愧], 뉘우침[悔]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정도였기에 벽에 붙여놓고 스스로 경계하는 요결로 삼았다.³⁰⁾ 이는 흡사 춘추시대 위(衛)나라 어진 대부인 거백옥(蘧伯玉)이 나이 육십이 되었을 때 그동안의 잘못을 깨닫고 고쳤다는 고사를 떠올리게 한다.³¹⁾ 그만큼 자신에 대한 치열한 반성과 성찰적 삶을 살았다는 반증일 것이다.

심지어 그는 「증설(證說)」에서 눈이 어두운 증세는 결국 심성(心性)이 병든 것과 연관시켜 존심양성의 방법을 설명하였고,³²⁾ 「게으른 농부에 대한 이야기」[懶農說]에서는 마음 밭(心田)과 게으른 농부와와의 비교를 통해 내면의 수양을 강조하였다.³³⁾

학문을 하는 자는 누구나 성현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는데, 경전의 가르침을 힘써 배우고 실지(實地)에 물을 대고 뿌리를 두려고 하지 않는다.

“밝은 덕은 마음 밭에 자라는 아름다운 곡식인데 스스로 포기하고, 쾌락과 탐욕은 인정의 밭에서 나는 잡초인데도 제거하지는 않고, 못난 자로 자처하면

29) 김동필, 위의 책 권4, 「九悔」, “小不勤學, 到晚景悔, 懣然義理, 不窮格悔, 躁發憤怒, 過事後悔, 妄論是非, 逢敗而悔, 友無擇焉, 智不明悔, 家欠和順, 身不修悔, 催租有患, 不即備悔, 茅屋滲漏, 失亟乘悔, 一證沈痼, 理不達悔.”

30) 김동필, 위의 책 권4, “年近六十, 積歲抱病, 獨坐自檢心身, 則凡吾所以曰難曰畏曰戒曰愧曰悔, 不可勝言, 而舉大概, 書諸壁以自警.”

31) 『장자』 「칙양(則陽)」에 “거백옥은 나이 육십이 되는 동안 육십 번이나 잘못된 점을 고쳤다.[蘧伯玉行年六十而六十化]”라는 말이 나온다.

32) 김동필, 『묵암문집』 권4, 「證說」 참조.

33) 김동필, 위의 책 권4, 「懶農說」 참조.

서 위로 나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³⁴⁾

지금 학자들의 병통은 마음 밭에서 자라는 아름다운 곡식은 포기하고, 인정의 밭에서 나는 잡초인 쾌락과 탐욕만을 추구하고자 한다. 김동필은 이는 필시 게으른 농부가 하는 짓과 다름이 없다고 한다. “게으른 농부의 병통은 그 몸이 굶주려 이웃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는데 그치고, 학자의 경우는 양능(良能)을 버리고 양지(良知)를 해쳐³⁵⁾ 그의 심지(心志)를 모두 잃고 식견 있는 자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되니, 이에 대하여 깊이 깨닫지 않을 수 있겠는가.”³⁶⁾라고 하였다. 게으른 농부의 폐해는 자신에게 한정되지만 마음 밭을 가꾸지 못한 학자는 자기 존재의 가치를 잃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꿈을 기록하다[記夢]」,³⁷⁾ 「이불[衾]」,³⁸⁾ 「그림자[影]」,³⁹⁾ 「밤기운[夜氣]」⁴⁰⁾ 같은 작품도 하나같이 심성의 수양을 주제로 한 것인데, 그만큼 김동필이 추구한 학문경향이 이론적인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양적인 측면에 초점이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마음의 수양을 중시 여긴 학문관점은 실천도덕과 관련성이 있다. 김동필은 평소 아들과 조카들을 경계하여

34) 김동필, 위의 책 권4, 「懶農說」. “明德, 心田之嘉種, 而自棄焉, 嗜欲, 情畦之稂莠, 而不除焉, 自處以鄙夫, 而莫肯向上.”

35) 양능(良能)을……해쳐 : 타고날 때부터 누구나 지니고 있는 양심과 지혜를 손상시켜 잘 보존하지 못함을 말한다. 맹자가 “사람이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은 양능이고, 생각하지 않고도 아는 것은 양지이다.[人之所不學而能者 其良能也 所不慮而知者 其良知也]”라고 하였다.(『孟子』 「盡心上」)

36) 김동필, 『목암문집』 권4, 「懶農說」. “懶農之病, 猶止於餓其體膚, 爲隣氓之所嗤嘲矣, 至於學者, 則棄良能賊良志, 全喪其心志, 而爲識者之所棄人, 可不深警于茲乎哉?”

37) 김동필, 위의 책 권4, 「記夢」 참조. 이 작품은 천금의 재물을 얻은 꿈을 소재로 하여 자신의 마음 다스림에 비유하였다.

38) 김동필, 위의 책 권4, 「衾」 참조. 여기서는 잠 잘 때 덮고 자는 이불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것을 강조하였다

39) 김동필, 위의 책 권4, 「影」 참조. 자신과 그림자는 떨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을 나타내었다.

40) 김동필, 위의 책 권4, 「夜氣」 참조. ‘야기’를 통해 양심을 잃지 말 것을 경계하였다.

“너희들은 반드시 효제(孝悌)를 우선으로 삼고 문예를 근본으로 삼지 마라. 효도와 공경을 행하고 여력이 있다면 학문을 하라는 성인의 말씀이 있으니, 이는 배우는 자로서 유념하여 보아야 할 일이다.”⁴¹⁾

『논어』 「학이」 편에 “제자가 들어가서는 효도하고 나와서는 공손하며, 행실을 삼가고 말을 성실하게 하며,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되, 인(仁)한 이를 친히 해야 하니, 이것을 행하고 나서도 여력이 있을 경우에 학문을 하라.”⁴²⁾고 한 공자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한다. 인간으로서 해야 할 기본 도리를 일상 속에서 실천을 다한 뒤에 학문을 하라는 것이다. 그는 또

“지행의 공부는 어느 한쪽도 버려둘 수 없다’고 하였으니,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일상생활 중에 수많은 사물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 이치를 알기는 해도 행하지 못한다면 그 앎이 도리어 쓸모없는 앎이 되니, 또한 어찌 맹자가 말한 도인도문(徒仁徒聞)의 가르침⁴³⁾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⁴⁴⁾

라고 하여, 실천을 담보하지 못한 앎이란 쓸모없는 앎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만큼 그는 실천의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 실천을 중시한 학문관점은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가학적(家學的) 특징이기도 하다.

41) 김동필, 위의 책 권7, 『默巖公遺事』. “且戒子侄曰: ‘汝等, 必以孝悌爲先, 勿以文藝爲本. 餘力學文, 聖人有言, 則此學者, 所當着意看了也.’”

42) 『論語』 「學而」. “弟子入則孝, 出則弟, 謹而信, 汎愛衆, 而親仁, 行有餘力, 則以學文.”

43) 도인도문(徒仁徒聞)의 가르침: 어질고 정치를 잘한다는 소문만 있고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맹자의 교훈을 말한다. 『맹자』 「이루상(離婁上)」에 맹자가 “선왕(宣王) 때에 제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못하였고, 무제의 말기에 강남(江南)이 크게 혼란하였으니,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어진 마음과 어질다는 소문은 있었으나 선왕(先王)의 도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宣王之時 齊國不治 武帝之末 江南大亂 其故何哉 有仁心仁聞而不行先王之道故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44) 김동필, 『묵암문집』 권3, 「與完之(述舜)書」. “嘗聞先儒之言曰‘知行之工, 不可偏廢.’何以言之? 日用間許多事物, 莫不有當行底道理. 雖知其理, 不能行之則其知也, 反爲無用之知, 而亦豈免孟子所謂徒仁徒聞之訓也耶?”

7대조 서계 김담수는 어렸을 때 『소학』을 읽다가 느낀 바가 있으면 겸양하여 남보다 자신을 낮출 것을 생각하였다고 한다.⁴⁵⁾ 『소학』의 몸소 실천은 평생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부모에 대한 효성과 형제간의 우애, 그리고 도의의 실천으로 나타났다.⁴⁶⁾ 뿐만 아니라 『소학』 중시사상은 그의 아들 월담 김정룡에게 계승되고 있다.

김정룡은 “평생 독실하게 『소학』을 좋아하여 깊이 의리를 깨달아 요결을 마음에 새겼다. 만년에 한 질을 깨끗이 베껴 써서 종신토록 힘쓰는 바탕으로 삼았고, 또 글을 써서 자식을 경계하였다.”⁴⁷⁾ 특히 그는 「소학발(小學跋)」을 지어 이 책이 “장차 후손들에게 물려주어 손때 묻은 것을 보고 보물처럼 완상하며 양심을 감발시켜 학문에 종사하기를 바란다.”⁴⁸⁾고 하였다. 자신은 물론 후손에게까지 『소학』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심지어 그가 세상을 떠나자 상주의 낙암사(洛巖祠)에 모셨는데, 그 봉안문에 『소학』을 중시한 점을 다음과 같이 특기하였다.

『소학』 한 책을	一部小學
익숙히 읽고 강론하여 밝혔네	熟讀講明
허노재와 김한원당처럼	魯齋寒暄
또한 몸소 행함을 본받았네	亦儀躬行
베껴 쓰고 엄숙하게 암송하여	繕寫莊誦
평생토록 마음에 새겼네	一生服膺 ⁴⁹⁾

45) 김담수, 『西溪先生逸稿』 권3, 「行狀」. “幼時, 因讀『小學』, 有所感發, 折節爲謙, 謹思以下人.”

46) 김담수, 위의 책, 같은 곳. “公天稟甚厚, 制行甚高, 早遊德溪錦溪之門, 與兩岡先生, 琢磨道義, 孝友之行修於家, 謙恭之德孚於人, 處鄉則屈己而守義, 交友則親賢而樂善, 踈財遠利, 默行躬修, 皆古篤行君子之所槩槩者.”

47) 김동필, 『목암문집』 권6, 「六代祖通訓大夫行豐基郡守府君遺狀」. “平生酷好『小學』一部, 深覺義理, 佩服要訣. 晚年, 繕寫一帙, 爲終身服膺之資, 且書誠諸子.”

48) 김정룡, 『月潭先生逸稿』 권2, 「小學跋」. “且以後昆, 以冀其覽手澤而寶玩, 感發良心, 從事此學耳.”

49) 김정룡, 위의 책 권3, 「洛巖祠奉安文」 참조.

한마디로 그의 『소학』 증시는 『소학』에 대해 신명처럼 믿고 부모처럼 공경했던⁵⁰⁾ 중국 원나라의 대표적인 유학자인 허형(許衡, 1209~1281)과 『소학』에 심취하여 스스로 ‘소학동자’로 일컬었던 한원당 김광필(1454~1504)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하였다.

생부 김도빈(金道彬) 역시 단박한 인품과 가정과 향촌사회에서 효우와 신의를 실천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⁵¹⁾

실제 그의 문집을 일별해보면 이론 성리학에 대한 저술은 거의 있지 않고, 내면의 심성수양⁵²⁾과 실천학문을 중시한 작품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요컨대, 목암 김동필이 추구한 내적 수양과 현실적 실천을 중시한 학문경향은 서계 김담수와 월담 김정룡으로 내려오는 가학연원을 계승함은 물론이거니와, 엄격한 자기수양과 실용학문을 추구한 남명 조식과 한강 정구의 학문경향과도 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목암의 시세계

목암 김동필은 자신이 지은 시를 별도로 모아 『잡영(雜詠)』이라 명명하고, 그에 대한 서문을 지으면서 시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었다. “시는 사람의 성정을 그린 것이니, 그 사람의 성정을 알려면 시를 두고 어디에서 구하겠는가?”⁵³⁾라고 하여, 사람의 진솔한 성정은 시를 통해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진솔한 성정은 현재 자신의 처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50) 『소학』. “信之如神明, 敬之如父母.”

51) 김동필, 『목암문집』 권6, 「生考成均生員府君遺狀」. “族祖昌泗祭之曰: ‘剗却浮華, 勉保眞諄, 公之性也, 孝友於家, 信義於鄉, 公之行也.’”

52) 심지어 「도연명의 귀거래사에 차운하다」라는 작품에서도 이욕의 삿된 길로 치닫고 있는 세간의 인정을 비판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김동필, 위의 책 권3, 「次陶翁歸去來辭」 참조.

53) 김동필, 위의 책 권4, 「雜詠序」. “詩者, 畫人之性情也, 欲知其人之性情, 舍詩而奚求哉?”

입신양명하여 나라를 다스릴 때 지은 시는 그 소리가 활달하고, 불우하게 실의에 빠져 있을 때 지은 시는 쓸쓸한 운치가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백과 두보는 만난 상황에 따라 그 회포를 그려내었고, 한유와 유종원은 일에 부딪혀 그 정을 읊었다고 하였다.⁵⁴⁾ 한마디로 시는 처해진 상황에 따라 내면세계의 진솔한 성정의 발현으로 보았다.

그러나 김동필은 시인은 곤궁함을 겪은 뒤라야 좋은 시를 쓸 수 있다는 ‘시궁이후공(詩窮而後工)’이라는 시관(詩觀)을 가지고 있었다.

“현달하여 시를 지은 자는 적고 곤궁하면서 시를 지은 자는 많으니, 그 까닭은 무엇인가? 멀리 강호에 있거나 깊숙이 암혈에 있게 되면 강호와 암혈에서 지내는 정(情)을 알고 있어서 시로 읊조리지 않을 수 없으니, 이는 남에게 알려지기를 구해서가 아니라 바로 본성에서 발하고 정에서 우러나기 때문이다.”⁵⁵⁾

현달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시를 쓸 리도 없겠지만, 시를 쓴다고 해도 깊은 감동과 위안을 주지 못한다. 반면 강호와 암혈에 묻혀 지내면서 곤궁한 삶을 살아온 사람의 시는 꾸밈없는 진솔한 성정이 자연스럽게 우러나기 때문에 뛰어난 시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관을 견지하게 된 것은 자신의 처사적 삶에서 기인된 것임은 물론이다. 나아가 김동필은 『잡영』 서문의 마지막에 “나도 성정이 있으니 강호의 정인가 암혈의 정인가? 옛사람의 시와 비교해보면 솜씨가 가깝다고는 못하겠지만 또한 내 성정에서 나와서 금하지 못한 것이 있다. 그래서 약간의 회포를 읊었으니, 뒷날 보는 자가 혹시라도 이 글을 통하여 나의 성정을 보게 되지 않겠는가?”⁵⁶⁾라고 하여,

54) 김동필, 위의 책, 같은 곳. “李杜, 隨遇而寫其懷, 韓柳, 觸事而賦其情.”

55) 김동필, 위의 책, 같은 곳. “達而爲詩者小, 窮而爲詩者多, 其故何在? 或遠而江湖, 幽而巖穴, 無不有以識其江湖巖穴之情, 則於是乎不能無詠於詩, 非所以求知於人, 而乃自然發於性出於情者也.”

56) 김동필, 위의 책, 같은 곳. “余亦有性情, 其江湖之情乎, 其巖穴之情乎? 其於古人之詩, 非敢手脚之或近似, 而亦發吾之情而有不得禁焉. 故未免有略于賦懷處, 後之覽者, 或不以文而觀吾之性情否?”

진솔하게 성정을 드러낸 자신의 시가 결코 옛사람에게 뒤지지 않을뿐더러, 곤궁한 현재의 처지를 시를 통해 승화시키고 있다.

『묵암문집』에는 시가 총 257제 360수가 수록되어 있다.⁵⁷⁾ 권1에는 123제 168수가 실려 있고, 권2에는 70제 104수가 실려 있고, 권3에는 64제 88수가 실려 있다. 시를 형식별로 분류해 보면, 5언 절구 23수, 7언 절구 165수, 5언 율시 47수, 7언 율시 103수, 5언 배율 1수, 7언 배율 1수, 장편 5언 고시 12수, 장편 7언 고시 2수, 5언 6구시 4수, 연구시(7언 율시) 2수로 되어 있다. 절구시가 188수를 차지한 가운데 7언 절구가 165수로 가장 많이 지어졌다. 근체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약간의 장편 고시도 창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눈에 띄는 외형적인 것을 지적해 보면, 「유거팔영(幽居八詠)」·「근차퇴계선생사시운(謹次退溪先生四時韻)」과 같은 작품은 연작시로,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의 풍광과 담박한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였으며, 「근차퇴계선생사시운」을 비롯하여 「우근차퇴계선생답청후운(又謹次退溪先生踏青後韻)」·「근차퇴계선생운시금재경(謹次退溪先生韻示琴再卿)」·「관수루경차노선생군자운(觀水樓敬次老先生君字韻)」같은 작품은 퇴계시를 차운하여 지었고, 나아가 「감흥(感興)」·「협운이십팔수약서역대(叶韻二十八宿 略書歷代)」는 장편고시로, 「감흥」은 공맹의 정통 학문이 중국에는 우리나라의 퇴계 이황에 의해 집대성되어 영원히 영남의 큰 스승이 된 점을 특기하였고,⁵⁸⁾ 「협운이십팔수약서역대」는 요순시대부터 명·청대까지 중국의 역사를 자신의 관점에서 개관하였다.⁵⁹⁾

또한 대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차운시나 만시, 그리고 증별시가 고루 창작되었고, 철학적 함의를 담은 철리시 계통의 작품은 거의 창작되지 않은 반면,⁶⁰⁾ 주변의 경관을 섬세한 필치로 형상화하거나 자신의 처지와 현재적 심

57) 김동필이 직접 짓지 않고 다른 사람이 지은 「元韻」시나 「次韻」시는 숫자에 제외했음을 밝혀둔다.

58) 김동필, 『묵암문집』 권3, 「感興」. “(생략) 위대하도다 도산옹이여, 중용의 도 깊이 체득하셨네. 집대성하여 어리석은 이 깨우쳐, 영원토록 영남의 스승 되었네. [偉哉陶山翁, 深得道中的. 集成膺群蒙, 百世嶠南鐸.]

59) 김동필, 위의 책 권1, 「叶韻二十八宿 略書歷代」 참조.

정을 담박하게 그려낸 술회시 계통의 작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장에서는 첫째, 사물을 통한 삶의 방향 투영, 둘째, 한적한 전원생활의 흥취, 셋째, 내면의 자기수양 등의 주제로 나누어 그의 시의 특질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사물을 통한 삶의 방향 투영

김동필은 은연 중에 자신의 처지와 현재적 심정을 자연 경물에 빗대어 묘사하였다. 우선 ‘묵암’이라는 자신의 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

(1)

요절과 장수 궁하고 통합의 이치 묵묵하니	旣壽窮通理默默
밝으면 깨달을 수 있고 어두우면 미혹되리	明能覺得暗焉惑
무형은 본래 유형 사이에 붙어 있으니	無形自寓有形間
해와 달 등글고 기우는 것을 보면 틀림이 없네	日月消長看不忒

(2)

석방산 아래 바위 우뚝 솟으니	石方山下石巖巖
세상 피한 은자 입 다물려 하네	屏世幽人口欲緘
날마다 나의 행동과 일 검속하니	日檢吾身行與事
그 속에서 하늘이 보심을 두려워하네	箇中祇畏上穹監 ⁶¹⁾

60) 김동필, 위의 책 권3, 「自古先輩理氣之論多端 後學各立己見 可歎 茲吟四絶」. 이 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理氣’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시는 이 시 외에 거의 없다. “형체 없는 것은 리이고 있는 것은 기이니, 섞이지도 떠나지도 않는 경계가 분명하네. 고요히 하나의 근원이 본성에 존재하니, 삼라만상이 정에 감응하여 통하는 것이네. 거북과 용이 나오기 전 선천의 비밀, 도기를 나누기 어려워 후학들이 다투네. 둘이면서 끝내 하나로 합함을 분별할 수 있다면, 중을 받아 태어남에 어긋남 없으리.[無形者理有形氣, 不雜不離分界明. 寂若一源存在性, 森羅萬象感通情. 龜龍未出先天秘, 道器難分後學爭. 能辨二而終合一, 庶乎無損受中생.]

위의 두 시는 그의 나이 56세에 지은 것이다. (1)의 시는 ‘묵’자에 대한 해석으로, 모든 사물의 이치는 묵묵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2)의 시는 ‘암’자에 대한 해석으로, 말없이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살라는 뜻이다. 이렇게 ‘묵암’이라는 호를 짓게 된 배경이 있다.

“내가 젊어서 남과 말할 때 경솔하게 내뱉었다가 돌이켜 생각하고는 스스로 깊이 뉘우친 일이 있다. 이후로 다시는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 그 길로 ‘묵암’이라는 두 글자로 호를 삼게 되었다.”⁶²⁾

지난날 자신의 경솔한 언행에 대해 뉘우친 결과 ‘묵’자와 ‘암’자를 가져다가 자신의 호로 삼았다는 것이다. 특히 석방산 우뚝 솟은 바위에다 자신의 의지를 투영하여, 앞으로는 저 바위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언행을 단속할 것을 다짐하였다.

바위 하나 푸른 강가에 우뚝 서서	有巖屹立碧江上
백겁 풍상에도 한결같은 마음이라네	百劫風霜一樣心
세상에 이름 없는 바위라 말하지 말라	莫說寰中名不在
임천의 청빈한 선비 마음 붙인 것이 깊다네	林泉寒士託知深 ⁶³⁾

푸른 강가에 우뚝 솟은 이름없는 바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바위. 세상 사람들아, 이름없는 바위라고 비웃지 마라. 임천의 청빈한 선비가 마음 붙일 곳은 바로 이뿐인 것을. 김동필은 이 바위에다 ‘무명암’이라 이름붙이고 ‘백겁 풍상에도 한결같은’ 자신의 마음을 이입시키고 있다. 「무명암기(無名巖記)」,⁶⁴⁾ 「묵암변(默巖辯)」⁶⁵⁾ 등의 작품도 처사적 처지에 있는 자신의 심정을

61) 김동필, 위의 책 권2, 「題默巖韻」 참조.

62) 김동필, 위의 책 권7, 「默巖公遺事」. “吾少時, 與人言, 有率爾之發, 反以思之, 深自悔悟. 自是以後, 不復妄言, 因以默巖二字爲號.”

63) 김동필, 위의 책 권1, 「無名巖」 참조.

64) 김동필, 위의 책 권4, 「無名巖記」 참조.

65) 김동필, 위의 책 권4, 「默巖辯」 참조.

자연물에 빗대어 부연 설명한 것이다.

다음은 자신의 지향이나 방향성을 자연물에 직접 투영하거나 이입시키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비유한 경우이다.

큰 눈에 덮인 소나무 푸름 보이지 않아도	大雪封松不見青
눈 속에서도 원래 그 푸름 변치 않는다네	中心元不變其青
한때 당한 침해를 탄식할 것이 무어라	一時侵外何須歎
아침 별 조금만 기다리면 또다시 푸를 텐데	俄待朝陽亦復青 ⁶⁶⁾

눈에 덮힌 푸른 소나무를 보고 읊은 시다. 눈 때문에 잠시 소나무의 푸르름을 볼 수 없지만, 아침이 되어 별이 나면 푸른 소나무의 본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푸른 소나무의 본모습은 외부적인 환경이나 충격에 의해 손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늘 푸른 소나무의 지조에다 자신의 심리상태를 이입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시는 불도화(佛桃花)보다 난초와 국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자세를 알 수 있다.

불도화는 어찌 이리도 화려한가	佛花何芍芍
겉을 새하얀 금빛으로 꾸몄구나	外面粧素金
실상이 없는 것은 적멸로 돌아가나	無實歸寂滅
이름이 있는 것은 고금에 전한다네	有名傳古今
봄날 난초와 가을날의 국화가	春蘭兮秋菊
어찌 너와 함께 마음을 논하랴	豈可與論心
꽃 중에서 너는 배반한 병졸이니	花中爾叛卒
선비와 대하게 하지는 말아야겠지	勿使對青襟 ⁶⁷⁾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불도화를 좋아할지 몰라도 군자의 기상을 닮은 난

66) 김동필, 위의 책 권1, 「詠雪裏松」 참조.

67) 김동필, 위의 책 권1, 「佛桃花」 참조.

초와 국화가 어찌 너와 함께 섞이려고 하겠느냐? 하물며 너는 부처의 머리를 닮았기 때문에 꽃 중에서도 배반한 병졸에 해당한다. 선비와는 더더욱 함께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봄날 난초와 가을 국화의 품성을 중시하고 있다. 「견회(遣懷)」⁶⁸⁾ 역시 국화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켜 위로를 받고 있으며, 「추화강경삼차노소재운(追和姜景三次盧蘇齋韻)」⁶⁹⁾도 노년까지 변함없는 자신의 심정을 대나무와 국화에 의탁하고 있다. 심지어 「몽학운(夢鶴韻)」⁷⁰⁾은 학을 만나는 꿈을 꾸고 적은 시인데, 병들어 초라한 자신을 한 점 속기없는 학에다 비유하여 나타내었다.

이상으로 자신의 삶의 지향이나 방향성을 자연물에 빗대어 묘사한 시들을 살펴보았다. 흔들림 없이 곳곳하게 서 있는 바위에다 자신의 의지를 투영하는가하면, 늘 푸른 소나무를 비롯하여 난초와 국화, 그리고 대나무를 소재로 인용하여 굳자다운 품성과 변함없는 지조를 형상화하였다. 이는 결국 김동필이 지향한 정신세계의 일단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한적한 전원생활의 흥취

김동필은 평생 출사하지 않고 향촌에서 생활하였다. 여기서는 향촌에서 한가롭게 지내며 자신의 시상을 펼친 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물고기는 달빛 비치는 강에서 노닐고	魚縱江心月
새는 구름 감싸인 나무에서 잠자네	鳥眠樹面雲
고요히 사는 은자 흥취가 많아	幽人多興味
새벽이 될 때까지 한가히 앉았네	閑坐五更分 ⁷¹⁾

땅에는 물고기가 자유롭게 노닐고, 하늘에 있는 새는 때가 되어 둥지로 들

68) 김동필, 위의 책 권1, 「遣懷」 참조.

69) 김동필, 위의 책 권1, 「追和姜景三次盧蘇齋韻」 참조.

70) 김동필, 위의 책 권2, 「夢鶴韻」 참조.

71) 김동필, 위의 책 권1, 「清夜吟」 참조.

어간다. 그 사이에 그 광경을 지켜보던 ‘그윽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는 흥취로 인해 잠을 청할 수 없어 새벽이 될 때까지 한가롭게 앉아있다. 여기서 ‘그윽한 사람’은 작자 자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흥취는 아마도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각각의 제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속에 내재해 있는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산이 아름다워 못 새들 노래 부르고	山媚呼群鳥
연잎이 일렁이니 물고기 떼를 짓네	荷翻逐隊魚
맑은 낙동강에 어여쁘게 뜬 달만이	娟娟清洛月
홀로 비추어 조용히 사는 사람과 짝하네	獨照伴幽居 ⁷²⁾

아름다운 산에는 새들이 노래하고, 연이 심긴 못에는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노닌다. 그런데 낙동강 가에 조용히 살고 있는 사람은 짝할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러나 절대 외롭지가 않다. 맑은 낙동강에 어여쁘게 뜬 달이 나와 짝이 되자고 비취주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속기없는 그윽한 정취를 그려내었다.

늦봄의 아름다운 흥취 눈앞에 새로우니	暮春佳興眼邊新
비갠 뒤 강산은 면면이 참모습이구나	霽後江山面面眞
풍광을 즐기니 먼지 낀 생각 끊어지고	弄把風煙塵慮斷
신선세계로 정신은 아득히 달려가네	蓬瀛前路遡馳神 ⁷³⁾

비갠 뒤 늦봄의 풍광을 묘사하였다. 눈앞에 산뜻하게 펼쳐진 모습은 그야말로 속기 한점 없는 강산의 진면목이다. 이런 풍광을 만끽하니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정화되어 속세의 먼지 낀 생각이 끊어지고, 신선이 사는 세계로 달려가고픈 심정뿐이라고 하였다. 세속의 이욕에 물들지 않은 탈속한 정신세

72) 김동필, 위의 책 권2, 「追和琴再卿韻 贈姜戚從禹吉新居」 참조.

73) 김동필, 위의 책 권1, 「奉別李上舍舟中 因步前韻贈之」 참조.

계를 형상화하였다. 좀 더 구체적인 향촌의 생활상을 들여다보기로 하자.

절기는 농사로 바쁠 철이라	節屆農殷日
마을의 방아 밤마다 소리나네	村杵夜夜聲
때맞추어 양식을 준비하니	及時糧可備
일이 또 생길까 염려해서이네	爲念事還生
촛불 어둡고 달이 없어서	燭暗嫌無月
한밤중에 별 보며 일어나네	更深起看星
이웃 아낙 앞 다투어 본받으니	隣娥爭慕效
농사일 익히며 강 마을에서 늙네	農習老江城 ⁷⁴⁾

농사철로 바쁜 시절에 밤마다 들려오는 마을의 방아소리를 듣고 지은 시다. 부산한 농촌의 실상을 정겹게 그리고 있다. 마지막 구절의 “농사일 익히며 강 마을에서 늙네”라는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김동필 자신이 서툴지만 직접 농사를 익히면서 살아간다는 뜻이다. 아무리 변화된 18세기 현실이라도 사족이 직접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평소에 추구한 학문경향이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것을 감안할 때 그리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니다. 더군다나 상주지역은 수암(修巖) 류진(柳軫, 1536~1610)이나 태촌(泰村) 고상안(高尚顔, 1553~1623)이 추구한 중농주의적 학문경향이 학문적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점에서 김동필의 농사에 대한 관심은 어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 외에도 「희우연喜雨聯」,⁷⁵⁾ 「나농설(懶農說)」⁷⁶⁾ 같은 작품도 위와 같은 생각의 연장선에서 지어진 것이다. 특히 「나농설」에는 농사와 학문을 비교하여, 결국 학문은 덕행을 통해 마음의 밭을 경작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누구나가 성현을 바라볼 수 있다는 논리이다

서산에 봄이 늦어 이제야 고사리 자라니 西山春晚始長薇

74) 김동필, 위의 책 권3, 「村春」 참조.

75) 김동필, 위의 책 권2, 「喜雨聯」 참조.

76) 김동필, 위의 책 권4, 「懶農說」 참조.

캐서 텅 빈 부엌에 가져가니 주림을 면하겠네 採進虛廚足療飢
날 저물면 또 누에치기를 이야기하니 日暮且談桑者泄
유유히 한가한 정취 어감이 없네 悠悠閑趣口無違⁷⁷⁾

봄이 되면 고사리 채취하여 주림을 면할 수 있고, 날 저물면 누에치는 이야기로 하루가 다 간다. 향촌의 봄날의 한가한 정취가 물씬 풍겨 나옴을 느낄 수 있다.

이상으로 전원생활의 한적한 흥취를 읊은 시들을 살펴보았다. 향촌의 일상 은 시간의 추이에 따른 계절의 변화, 자연의 기후변화, 하루의 시간에 따라 느끼는 심회가 있을 수밖에 없다. 김동필은 더러는 각각의 사물 속에 내재해 있는 이치를 관조하고, 그에 따른 심적 희열을 시적으로 형상화하기도 하였고, 깨끗한 주변의 사물을 통해 세속의 이욕에 물들지 않은 탈속한 정신경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좀더 민초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그들과 함께 한적한 농촌의 실상을 담백한 필치로 그려내기도 하였다. 이 같은 진솔한 삶의 시적 표현은 칠십 평생 향촌에서 처사적 삶을 살아온 그에게 있어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내면의 자기수양

앞의 II장 2절의 학문경향에서 확인했듯이, 그가 추구한 학문경향은 내면의 자기수양과 현실적 실천을 중시하였다. 그래서 그의 일상은 자연스레 자신을 성찰하는 수양적 삶의 연속이었다. 따라서 그의 한시도 이 같은 수양적 내용을 담고 있음은 물론이다.

문 앞 작은 나무가 먼저 시드니 門前小木先秋黃
네 뿌리에 이미 병이 생긴 줄 알겠네 知爾根柢病已生
이로써 내 머리 일찍 섰 까닭 알았노니 從覺吾人霜髮早

77) 김동필, 위의 책 권1, 「謹次退溪先生四時韻・暮」 참조.

수양하여 마음 편히 하는 것만 못 하네

不如閑養一心平⁷⁸⁾

이 시는 작은 뽕나무가 일찍 시드는 것을 보고 그 느낌을 적은 것이다. 미물이 시드는 것이야 보편적으로 있는 일인데도 김동필은 세심한 관찰을 통해 자기수양과 결부시키고 있다. 뽕나무가 시든 것은 근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뿌리가 병이 들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자신을 돌아보니, 머리가 하얗게 센 것은 마음의 수양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더욱 성찰의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산림에서 학문한 지 몇 해나 되었나

林下舌耕間幾年

이 마음의 ‘공’ 자는 하늘과 똑같네

此心公字一般天

주립과 추위는 우리 선비의 병폐가 아니고

飢寒不是吾儒病

겸양은 자신을 보존하는 좋은 터전이네

謙退自存好箇田⁷⁹⁾

심지어 김동필은 친구에게 시를 주면서 마음 수양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공변된 마음은 하늘과 같다. 하늘같은 이 마음은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움직여서는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가난과 굶주림은 선비의 병폐가 아니며, 그럴수록 겸손과 겸양만이 자신을 보존하는 터전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마음은 외물에 쉽게 이끌리기 마련이다.

담장 동쪽에 응인⁸⁰⁾이 와 사냥하니

鷹人來獵小墻東

나도 몰래 몸이 그곳으로 다가갔네

不覺身移到彼中

이는 의지가 기질에 끌려서이니

只是志爲氣所引

명도가 수양한 공부⁸¹⁾ 본받아야지

願隨明道克治工⁸²⁾

78) 김동필, 위의 책 권1, 「見小桑早黃感述」 참조.

79) 김동필, 위의 책 권1, 「吟一絕 贈琴上舍再卿 英澤」 참조.

80) 응인(鷹人) : 궁중(宮中)의 내응방(內應房)에서 매를 부리던 사람이다.

81) 명도(明道)가 수양한 공부 : 명도는 송나라 정호(程顥)의 호이다. 그는 젊어서 사냥을 좋아하였는데, 얼마 뒤에 그러한 마음이 없어진 줄 알았다가 그로부터 12년 뒤 들어서 사냥하는 사람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기쁜 마음이 일어나는 것에서 기질을 극복

인간의 마음은 외물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기 마련이다. 김동필 역시 언젠가 매사냥을 보고 마음과 몸이 그쪽으로 치달은 적이 있음을 고백하였다. 그 원인은 의지가 확고하지 못해 기질에 끌려다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바로 정명도의 마음 수양공부를 본받을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다음은 도남서원 젊은이들에게 수양공부를 부지런히 할 것을 강조하였다.

국화 핀 초가을에 선비들이 많이 모여	靑襟濟濟菊秋初
강학하는 자리 앞에서 강론을 듣네	臯比筵前聽緒餘
본원을 얻으려면 스스로 반성하고	欲得本原宜自反
이치를 궁구하자면 책을 통해야 하네	如論窮理亦於書
제생이 의리를 강하여 이를 연마하니	諸生講義磨礱是
군자가 전수받은 심법 해와 달처럼 밝네	君子傳心日月如
옳고 그름 판단할 수 있다면 배웠다 하리니	剖斷邪正能謂學
모름지기 ‘경’자로 지남거 삼아야 하리	須將數字作南車 ⁸³⁾

도남서원은 상주를 대표하는 서원이다. 국화 핀 가을에 서원 강회에 모인 유생들에게 학문에 정진할 것을 격려하는 시다. 학문의 근원을 얻으려면 성찰의 자세가 필요하고, 이치를 궁구하려면 성현이 남긴 책을 탐구해야 한다. 유생들이 부지런히 학문에 정진한다면 멀지 않아 성현이 전수받은 심법이 해와 달처럼 빛날 것임을 기대하였다. 그렇게 하기 위해 김동필은 마지막에 심신을 수양하는 방법으로 ‘경’ 공부를 특별히 강조하였다. 그의 수양공부는 끊임없는 성찰의 연속이다.

갈대 재 다 날고 일양이 회복되니	葭灰飛盡一陽復
외진 마을에 다시 무오년 봄을 맞네	窮巷又迎戊午春
칠순 바라보는 늙은이도 소원이 있으니	望七衰翁猶有願

하기 어려움을 새삼 깨달았다고 한다.

82) 김동필, 위의 책 권1, 「觀鷹獵偶述」 참조.

83) 김동필, 위의 책 권1, 「追和道院講會韻 三首」 참조.

해마다 자애와 신실함 새로 더하였으면

年年添得子諒新⁸⁴⁾

양의 기운이 처음 생겨나 만물의 생기가 회복되는 봄날이다. 고향에도 봄이 들어 온통 주위에 생기가 가득하다. 그러나 칠순을 바라보는 인생의 황혼 무렵에 김동필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순리에 따를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소원이 있다. 퇴보해가는 인생의 노년기에 끊임없는 내면의 수양을 통해 자애로움과 신실함이 나날이 새로워지기를 염원하였다. 이 같은 성찰의 결과, 그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지역사회에 큰 어른으로서 소임과 책임을 다하여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IV. 맺음말

묵암 김동필은 칠십 평생 향촌에서 처사적 삶을 영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출사하여 나라와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대부로서의 소임을 행한 것이 아니라 처사형 학자의 전형으로 한 가문의 가통을 세우는 일과 향촌사회의 민풍을 순화시키는 일에 매진하였다.

아울러 그가 추구한 학문은 처사적 삶에 걸맞게 이론적인 학문보다는 내면의 심성수양과 실천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 같은 학문경향은 내적으로는 서계 김담수와 월담 김정룡의 가학전통과 외적으로는 남명 조식과 한강 정구의 학문관점을 이어받아 당대 자기 나름의 학문을 추구하였다.

아울러 360여수에 달하는 그의 시문학도 사변적·철학적 함의를 담고 있는 철리시 계통의 한시는 거의 없고, 자신이 살고 있는 향촌에서 느끼는 일상의 체험을 담담한 필치로 표백하였다. 그런 가운데 ‘사물을 통한 삶의 방향 투영’에서는 자신의 현재적 심정과 처지를 주변의 자연물에 투영시켜 형상화하였는데, 이는 결국 김동필의 정신세계의 일단을 보여준 것이고, ‘한적한 전원

84) 김동필, 위의 책 권2, 「春願」 참조.

생활의 흥취'는 향촌에서 한가롭게 지내며 자신의 그윽한 시상을 펼친 것으로, 칠십 평생 처사적 삶을 살아온 그에게 있어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내면의 자기수양'은 끊임없는 성찰의 삶을 시적으로 담아내었다. 한마디로 그의 시세계는 처사적 삶에서 느끼는 진솔하고 담백한 심회를 그려내었다고 할 수 있다.

강고(江皐) 류심춘(柳尋春, 1762~1834)은 「묘갈명」을 지으면서 그의 인간됨을 다음과 같이 종합하였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人好辭令
공은 묵묵함을 지키셨고	公守其默
시속은 사치함을 좋아하지만	俗艷奢侈
공은 질박함을 따랐네	公賡其質 ⁸⁵⁾

당시 사람들은 경박하게 말하기를 좋아했지만 그는 우뚝 서 있는 바위처럼 과묵하였고, 당시 세태는 화려하고 사치함을 좋아했지만 그는 질박을 추구하였다고 했다. 이러한 정신자세를 지닐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수양의 결과임은 물론이다. 한 가문의 어른으로서 향촌사회에서의 존경받는 인물로서 가져야 할 인간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오늘 우리는 목암 김동필을 통해 진정 처사형 학자의 소임과 책무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

한편, 목암 김동필이 추구한 학문과 문학은 의성 김씨 죽암 문중의 가학(家學)의 특징을 보여주는 동시에, 상주라는 지역사회의 학문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개별 연구가 축적된다면 향후 통합적인 지역학 연구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 이 논문은 2017년 9월 13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7년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7년 9월 20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85) 김동필, 위의 책 권7, 「默巖金公墓碣銘」 참조.

참고문헌

『論語』

『小學』

金聘壽, 『西溪先生逸稿』(3권 1책)

金廷龍, 『月潭先生逸稿』(3권 1책)

金廷堅, 『菊園先生逸稿』(2권 1책)

金東弼, 『默巖文集』(7권 1책), 大耕出版社, 1981.

『高山及門錄(상)』, 영남퇴계학연구원, 국학미디어, 2011

김홍영, 『月潭菊園兩先生聯芳逸稿』, 도서출판 한솔사, 2014.

박미경, 『서계선생일고』, 한국국학진흥원, 도서출판 한빛, 2011.

박미경, 『목암문집』(1·2), 한국국학진흥원, 디자인 판, 2016.

정우락, 「목암문집」해제, 『목암문집』(1,2), 한국국학진흥원, 2016.

Abstract

The Life and Poetry World of Dongpil Kim with the Pen Name, Mugam

Kwon, Jin-ho

This study has examined the life and poetry world of Dongpil Kim with the pen name, Mugam (1736~1807). He retired at his hometown all his life and lived a scholarly life without entering into official positions. He was devoted to establishing the tradition of his family and refining the folk manners of his hometown.

His scholarly achievements tended to emphasize the training of internal mind and practices rather than theoretical aspects. His scholarly trend internally inherited the tradition of families established by Damsu Kim with the pen name (1535~1603), Seogyee and Jeongryong Kim with the pen name, Woldam (1561~1619). It was also externally handed down from the scholarly aspects of Sik Jo with the pen name, Nammyeong (1501~1572) and Gu Jeong with the pen name, Hangang (1543~1620). With such influences, he sought after his own scholarly world. As a result, his poetry world of 360 pieces calmly expressed daily experiences at his hometown. Not a poem of his had any philosophical ideas. He projected his emotions and situations of the moment into natural objects, and formalized them, vividly describing the delight of rural life and representing his constant meditation in his poems.

To sum up, a series of achievements made by him contributed to consolidating a family and heightening its social status in terms of family matters, and also promoted the awareness of a Confucian scholar's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in terms of regional aspects. In a word, he was a man who lived a typical life of a Confucian scholar without entering into official positions.

key words : Dongpil Kim, a Confucian scholar without entering into official positions, family tradition, mind training, folk manners, scholarly aspects, poetry of philosophical ideas, formalization, family matters, regional aspects

